

5강

-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본풀이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1.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 주화(呪花) 관장신의 내력담이다. <이공본풀이>는 흔히 ‘꽃불휘’ 라고 한다. 꽃의 뿌리, 즉 서천꽃밭 주화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이다. ‘꽃불휘’ 인 <이공본풀이>는 ‘신불휘’ 인 <초공본풀이>, ‘노불휘’ 인 <삼공본풀이>와 함께 제주도 무속의 핵심을 이루는 3대 불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중시된다.

<이공본풀이>는 서사무가의 전승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쟁을 이끌어왔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전승 혹은 작품이 적지 않다. 서사무가로 평안도의 <신선세턴님청배>와 경남 김해의 <악양국왕자노래>가 있다. 또한 『월인석보(月印釋譜)』에는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으로 실려 있다. 고소설로는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이 있다. 기림사 사찰연기설화로 <기림사사적(祇林寺事蹟)>이 있고, 불화(佛畵)로 <사라수탱(沙羅樹幀)>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사무가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공본풀이>는 동계(同系) 서사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동계 서사물과 견주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서천꽃밭에 대한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2.

<이공본풀이>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가난한 김정국, 부자인 임정국 대감이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각각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를 낳는다.

- (2)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장애를 딛고 혼인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한다.
- (3) 사라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 살이를 떠나게 되자 함께 길을 나선다.
- (4) 도중에 원강아미가 힘에 부치자 자원하여 자현장자의 종으로 팔리고 사라도령과 이별한다.
- (5)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며 할락궁이를 낳아 홀로 키운다.
- (6) 원강아미와 할락궁이는 원강아미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아차린 자현장자로부터 심한 벌역을 당한다.
- (7) 할락궁이는 원강아미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탈출한다.
- (8)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이르러 부자 상봉, 친자 확인한다.
- (9)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얻어다가 자현장자 일가를 멸족 시킨다.¹⁾
- (10) 할락궁이는 죽은 어머니를 주화로 살려내고 둘은 각기 신으로 좌정한다.

이야기 전반의 주인공은 할락궁이이다. 서천꽃밭의 의미가 강조되다보니 주화 관장신 사라도령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난한 김정국, 부자인 임정국 대감이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각각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를 낳는다. 김정국은 가난해서 불공을 드릴 제물도 마련하지 못하는 신세였다. 임정국이 제물을 마련해주어서 비로소 불공을 드릴 수 있었다. 불공을 드린 결과 김정국은 아들을 얻고, 임정국은 딸을 얻었다. 임정국이 오히려 제물이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을 얻었다. 정성의 모자라서 딸을 얻게 된다고 하는 설정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공본풀이>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 자식을 얻게 되자 둘은 구덕혼사를 하여 장래 사돈이 되기로 한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한다. 둘이 성장해서 혼인을 할 나이가 되자 혼사에 장애가 생긴다. 김정국 대감이 여전히 가난해서 임정국이 혼사를 꺼린 것이다. 이때 원강아미가 나서서 약속대로 하자고 주장하여 혼사가 이루어진다.

1)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는 다양하다. 생불꽃, 환생꽃, 멸망꽃을 비롯하여 웃음꽃, 싸움꽃 등이 있다. 환생꽃의 쓰임에 앞서 뼈 살리는 꽃, 살 살리는 꽃도 있다. 이 가운데 환생꽃은 본풀이에서나 쓰일 뿐이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 벼슬을 떠나게 된다. 원강아미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꽃밭으로 떠나는 사라도령을 따라 나선다. 원강아미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이 있다. 서천꽃밭은 인간 세상이 아니고, 따라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원강아미가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원강아미는 자원하여 자현장자에게 종으로 팔리는 길을 택한다. 사라도령도 어쩔 수 없이 원강아미와 눈물로 이별하고 길을 떠난다.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거둬진 요구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아들 할락궁이를 낳아 키워낸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초현실적인 도움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의 집을 탈출하여 아버지 사라도령을 찾아 나선다. 할락궁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원강아미는 동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자현장자의 괴롭힘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에 할락궁이가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할락궁이가 탈출하자 자현장자는 노하여 원강아미를 죽이고 만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가 풀어놓은 개의 추격을 따돌리고 서천꽃밭으로 간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물을 건너는 긴 노정을 거쳐 서천꽃밭에 이른다. 사라도령을 만나 부자 상봉하고 친자 확인을 거친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주화(呪花)를 가지고 자현장자 집으로 돌아가서 일가를 모아놓고 멸족 시킨다. 사람들에게 갖은 어려움을 불러주는 수레멜망 악심 꽃이 이렇게 해서 규범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할락궁이는 죽은 어머니를 주화로 살려내고 신으로 좌정한다. 어머니 원강아미는 서천꽃밭 유모어명으로, 할락궁이는 아이차사로 좌정한다.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일반적으로 기자(祈子)하여 태어난 자식이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본풀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공본풀이>도 그러하다. 기자로 태어난 부모의 자식이 주인공과 같은 행적을 보인다.

원강아미는 여러 모로 적극적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을 성사시킨다. 임신 중임에도 사라도령을 따라 나선다. 스스로 자현장자의 종으로 팔린다. 온갖 괴롭힘을 이겨내면서 활락궁이를 키워낸다.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휘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면모이다.

사라도령이 임신중인 원강아미를 자현장자 집에 종으로 팔아두고 떠나면서 원강아미와 활락궁이의 고난이 시작된다. 아버지에 해당하는 존재가 임신만 시켜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설정이다. 그 결과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이 갖은 고난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되돌아가는 법이지만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 주화 관장신의 직무를 수행하러 간 것으로 설정된 것이 다르다. 그런데 서천꽃밭도 하늘에 버금가는 세계여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강아미와 활락궁이가 남겨진 곳이 자현장자라는 부잣집인 것이 특별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자의 악행이 유별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자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동침을 요구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죽이기에 이른다. 가난한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부자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은 제주도 본풀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서 김정국이 가난해서 불공을 드리는 데 있어서나 활락궁이를 혼인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활락궁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을 따돌리고 먼 길을 여행한 끝에 부자상봉을 하는 대목도 우리 신화의 전통에서 보던 것이다. 주몽과 유리가 그러하다. 그다지 뛰어난 것이 없던 활락궁이가 부자 상봉을 통해서 얻은 주화로 특별한 힘을 얻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영웅적인 면모가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갖은 고난 끝에 부자 상봉을 이루어 주화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보다 주화의 힘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하는 셈이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을 건너는 것으로 설정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올 때 물에 뛰어드는 과정을 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림이 저승으로 갈 때는 이와 달리 평지를 걸어가다가 굴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니 한결 같지는 않은 셈이다.

할랑궁이가 서천꽃밭에 이른 대목에서 서천꽃밭의 의미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천꽃밭은 아이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들은 꽃밭에 물주는 일을 담당한다. 가난한 집에서 살던 아이는 여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부잣집 출신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은 바가지가 깨져서 서럽게 울기도 한다.

할랑궁이가 자현장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는 대목도 주목을 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이처럼 철저한 복수를 감행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이 각시에 대한 징치,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데귀일이딸에게 하는 징치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원강아미의 주검에 대한 묘사가 고리동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데 쓰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 대나무, 동백나무 가지가 주검을 뚫고 나왔다는 데 근거해서 굿을 할 때 고리동반을 만들어 올린다. 이것은 <문전본풀이>에서 여산국 부인 주검이 있던 자리의 흙을 모아놓고 분노에 찬 일곱 아들이 쳐서 구멍을 낸 데서 시루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서천꽃밭의 주화 관장신이 사라도령임에도 불구하고, <세경본풀이>에서는 달리 설정되기도 한다. 정수남을 죽인 탓에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자원사위가 된 뒤에 주화를 얻어다가 정수남을 되살려낸다. 이때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존재는 황세곤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자청비가 서천꽃밭으로 갈 때는 말을 타고 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본풀이에 따라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설정을 달리한 것이다.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제각기 필요한 설정을 한 셈이다. 이는 <세경본풀이>의

1) 고리동반은 굿떡의 일종이다. 방울떡과 병것떡으로 이루어진다. 병것떡을 방석처럼 두고 그 위에 방울떡을 두르고 쌓은 다음 댓가지로 엮고, 다시 너울지로 싼다. 이 떡은 굿의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내용이 <지장본풀이>에도 쓰이고, 다시 이것들이 ‘새드림’ 사설에도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성질의 것이겠다.

4.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의 근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서천꽃밭은 주화를 가꾸는 곳이다. 서천꽃밭은 생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다. 이곳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삼승할망은 이곳에서 생불꽃을 얻어다가 잉태를 시킨다. 그런가 하면 서천꽃밭은 어린 아이의 저승이기도 하다. 어린 아이의 영혼이 이곳에 거쳐하면서 주화에 물주는 일을 한다. 서천꽃밭은 이상세계가 아닌 셈이다.

<이공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는 서천꽃밭을 특별한 공간으로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굿에 필요한 규범을 다각도로 마련하였다. <이공본풀이>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굿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굿의 절차와 의미를 다시 <이공본풀이>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할망본풀이>와 불도맞이는 <이공본풀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

